

광주 도심 5대 저수지 생태공원으로

3년간 179억 들여 친환경 정비 정화 시설 설치·수초심 등 조성

수질악화와 쓰레기 투기 등으로 탐방객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어온 양산·용봉·운천·운암·풍암 저수지 등 광주 도심공원내 5대 저수지가 친환경적으로 정비된다. 수질정화 시설과 순환산책로를 설치하고 각종 수생식물을 심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한다

이들해까지 정비작업이 진행된다. 이들 저수지에는 5억원(운암)~55억원(운천)의 사업비를 들여 수중폭기시설과 분수, 인공폭포, 인공수초섬, 파고라, 관찰데크, 경관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수지내 다양한 생태계를 복원하고 호수 주변을 녹화해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나가는 한편 시민건강 및 정서함양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콜센터 전용건물 첫 삽 광주시는 29일 서구 치평동 예술의 전당 웨딩홀 건너편 부지에서 박광태 시장과 강박원 시의회 의장, 전주언 서구청장, 김영진 광주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콜센터 전용건물' 기공식을 가졌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세계 탄소시장은 지금

광주서 기후변화 대응 국제 세미나 내일 DJ센터서...4개국 전문가 참석

영국과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4개국 국제 탄소시장 전문가들이 탄소거래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에 모인다. 광주시는 오는 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 탄소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유럽의 탄소배출권(CER)시장 전문가인 주한영 국대사관 기후변화팀장 토니 클렌슨, 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기관인 IGES의 타쿠로 코바시 연구관, 싱가포르 아시아카본(ACX)의 탄소배출권 거래팀장 임마누엘 에드워드가 참가해 '영국과 EU의 기후변화 대응', '일본의 탄소배출권 거래' 등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선다.

국내에서도 정래권 기후변화대사과 한국전력거래소 광역신 신재생에너지팀장, 한국서부발전(주)의 김덕진 발전처장이 '저탄소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국내 탄소시장 추진체계 및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 대사는 국제사회에 '녹색성장'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제안해 지난 200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아·태지역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되도록 한 전문가이다. 세미나는 김정인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광주시는 정부가 오는 2011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키로 한 데 맞춰 탄소거래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

활짝 핀 '효사랑'... 복지행정 '새지평'

'효(孝)사랑 1번지'인 광주시 남구의 복지정책이 시행 6년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지자체 중 최초로 효 사상을 지방행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추진방식을 크게 바꾸는 등 행정복지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지난 2006년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효사랑' 브랜드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 평가에서는 삼성화재보험, LG생활건강 화장품 등 대기업 브랜드가 대상 수상자로 뽑혔으며, 자치단체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효사랑'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남구가 적극 추진해온 '효사랑'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 '웹피아'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5, 6학년용 인성교육교재 '효사랑 생활'을 개발, 광주시내 전 초등학교에 보급하기도 했다. 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노인수발 보합제 시범실시,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운영 등 5개 복지 시범사업을 유치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꾀했다. 남구의 효사랑 실천사업이 만들어낸 최대 성과는 오는 12월 완공 예정인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인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은 남구 효덕동 노대마을 일원에 41만2천724㎡ 부지로 조성되며, 복지회

남구 복지정책 시행 6년만에 성과 각종 브랜드 평가 대상...전국 명성 '빛고을 건강타운' 건립 등 끌어내

'효사랑' 운동은 가족의 해체와 노인 및 청소년 문제 등 최근 심화되고 있는 각종 사회적 갈등을 전통적인 효사상에 21세기적 가치를 담아 극복하자는 취지로 황일봉 청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됐다. 남구는 효사랑의 대중화·전국화를 위해 효녀 가수 노리 알려진 가수 현숙씨를 '효사랑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성산대학원대학교, 광주시태권도협회, 광주향교, 광주수피아여고 등 많은 단체들과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효 문화를 콘텐트화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관, 문화센터, 종합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노인건강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남구가 추진하는 각종 효사랑 관련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효사랑 실천운동은 전통문화인 '효 사상'에 기반하고 있지만 모든 세대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통적인 효 개념과는 차이를 달리한다"며 "효사랑 실천운동의 전파와 전국화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일반직 공제회 청산

정율성 선생 출생지

지정 무효확인소 취하

운영방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시교육청 일반직 공제회 청산결국 설립 40년만에 청산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9일 "최근 공제회 해산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찬반 투표 결과 80%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청산 절차에 들어가 임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적립된 금액은 31억1천여만 원으로 불입금에 따라 회원 865명에 배분된다. 최고 수령액은 37년10개월을 불입한 3급 국장급으로 1천786만 원이 배분되며 최저 금액은 1개월치를 납입한 신규 직원 20여명으로 각 1

만5천300원씩이다. 공제회는 시 교육청 9급 이상 일반직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으며 지급에 따른 표준급여액의 3%를 공제하고서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도록 돼 있으나 일부에서 지급에 따라 수령 금액의 차이가 크고 하위직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액이 많다는 이유로 개선 요구가 적지 않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968년 설립돼 회원들이 퇴직할 때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줬으나 40년만에 청산하게 돼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출신 중곡음악가인 정율성 선생의 생가터 논란과 관련, 하동정씨 문절공파 대종회가 광주시 남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출생지 지정 행위 무효확인소송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남구청은 양립동 79번지를 정 선생의 출생지로 규정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대종회는 풍구 불로동 163번지가 생가터라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하동정씨 문절공파 대종회 관계자는 "소 취하가 양립동 생가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강필성기자 kps@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난청이 사라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2) 227-9940

총장점 (02) 227-9970

노인이 웃는 세상!

청각장애가 없어야 행복한 세상입니다.
 청각장애가 없어야 행복한 세상입니다.
 청각장애가 없어야 행복한 세상입니다.
 청각장애가 없어야 행복한 세상입니다.
 청각장애가 없어야 행복한 세상입니다.
 청각장애가 없어야 행복한 세상입니다.

신천국립 청각시스템 프리드

청각장애상담전화 ☎ 1688-3740

노인방문

노인복지서비스사업 ☎ 1577-1389

광주광역시 노인복지전문기관

전라남도 노인복지전문기관